



지은이 - 장 지오노
옮긴이 - 김경은
펴낸곳 - 도서출판 두레

외로운 노력으로 황무지를
아름답게 가꾸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

〈나무를 심은 사람〉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읽힌 책은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라고 합니다. 저도 성경 다음으로 〈어린 왕자〉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두 권의 책 모두 프랑스 말로 씌어진 책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되어 아주 큰 감동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나무와 숲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 〈나무를 심은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953년에 처음 발표된 이 책은 아주 짧은 내용인데 전 세계 13개국의 다른 말로 번역되어 50년 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이름의 50대 남자는 황량하고 거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 혼자서 탄탄한 집을 짓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도토리나무와 밤나무, 그리고 자작나무를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심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나무를 심은 사람, 부피에 덕분에 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단지 세 가구의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죽어있던 것 같은 프로방스 지방은 나무가 자라면서 평화롭고 살기 좋고 행복을 나누며 많은 사람이 이사 오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을로 변해가지만 아주 조금씩 오랜 세월이 걸쳐 일어난 변화를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합니다.

꼭 칭찬과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옳은 일하기에 자신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낸 절망하지 않은 사람 엘제아르 부피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글/김영숙(시인, 해오른누리기획실장)〉